제2부 신앙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

2부 · 소극적 표지 7: 감정의 정도

『신앙감정론』 제2부 일곱 번째 소극적 표지, 인쇄 224~229쪽. 파일 제목은 '감정의 정도'지만 본문 내용은 '여러 감정이 함께 일어남(감정의 다양성)'입니다. 재료는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대목에서 끊깁니다.

🧭 흐름 한눈에

에드워즈는 먼저 명제를 세웁니다. 여러 신앙감정을 한꺼번에 체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감정이 은혜에서 왔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성경 인물들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 경외, 감사, 기쁨, 열심, 갈망, 소망 하나하나에 모두 가짜가 있었습니다. 가짜가 하나씩 생길 수 있다면 여럿이 한꺼번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호산나'를 외친 군중이 그 예입니다. 에드워즈는 그 이유를 감정의 본성에서 찾습니다. 사랑은 모든 감정의 원천이어서, 사랑의 모조품이 생기면 다른 가짜 감정들도 줄줄이 따라 나옵니다. 그는 환상과 음성으로 거짓 확신을 얻은 사람을 가상으로 그려 이 과정을 보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샘과 나무, 두 관원장의 꿈 비유를 듭니다. 겉모양은 닮아도 근원이 다르며, 그 차이는 열매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 표지 카드

표지 7(소극): 여러 종류의 신앙감정이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해서 그 감정이 은혜에서 왔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은혜로운 감정은 하나하나 모두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모조품 하나만 있으면 다른 가짜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감정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준은 감정의 근원과 열매입니다.

📜 절별 정리

📜 1. 명제: 가짜 감정도 모으면 은혜와 닮아 보인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신앙감정(affection, 하나님과 신앙의 일을 향해 마음이 기울고 움직이는 것)을 동시에 체험했다는 사실은 그 감정이 은혜로운지 아닌지를 결정할 충분한 근거가 아닙니다. 거짓 믿음은 보통 한쪽으로 치우치고 비정상적입니다. 참 믿음에 있는 온전함과 조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짜 감정을 합쳐 놓으면 은혜로운 감정과 꽤 비슷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느꼈다'는 목록만 보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1. 감정의 가짓수는 판단 근거가 못 된다
2. 거짓 믿음은 보통 치우치고 조화가 없다
3. 그래도 가짜를 모으면 진짜와 닮을 수 있다
4. 판단은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다른 데서

📜 2. 은혜로운 감정마다 가짜가 있다: 슬픔, 경외, 감사

에드워즈는 앞 장(표지 6)에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에도 모조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짚고 범위를 넓힙니다. 먼저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바로, 사울, 아합, 광야의 이스라엘은 모두 “내가 죄를 지었다”며 슬퍼했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동시에 자기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도 그분의 큰 능력 앞에서는 굴복하는 척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찬송을 불렀지만 곧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나병이 나은 나아만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에드워즈의 요지는 감정 하나하나는 은혜 없이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사랑에도 모조품이 있다(표지 6)
2. 바로·사울·아합의 회개는 가짜 슬픔

4. 원수의 억지 굴복도 경외처럼 보인다

5. 홍해의 찬송, 나아만의 감사도 모조품

출애굽기 9:27

바로가 “내가 범죄하였다” 했으나 곧 마음이 굳어진 가짜 회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사무엘상 24:16~17

사울이 다윗 앞에서 울며 잘못을 인정한 일시적 슬픔

16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17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무엘상 26:21

사울의 두 번째 고백. 반복되지만 열매 없는 슬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열왕기상 21:27

아합이 굵은 베를 입고 슬퍼함. 겉의 회개가 곧 은혜는 아님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베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민수기 14:39~40

광야 이스라엘이 슬퍼하며 “올라가자” 함. 순종 없는 회한

39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40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열왕기하 17:32~33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상도 섬긴 사마리아인. 가짜 경외

32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33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시편 66:3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원수가 굴복함. 강요된 굴복은 참 경외가 아님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시편 106:12

홍해에서 찬송한 이스라엘. 금세 사라진 가짜 감사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나아만의 감사는 에드워즈가 장절 없이 이야기로만 언급합니다. 열왕기하 5장)

📜 3. 기쁨, 열심, 갈망, 소망에도 가짜가 있다

목록은 계속됩니다. 영적인 기쁨에도 모조품이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가 금방 시드는 사람이 그렇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잠시 즐거워한 무리가 그렇습니다. 열심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예후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했습니다. 회심 전의 바울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은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도 진지한 종교적 갈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바람은 하나님 백성의 복된 상태를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감정 목록 거의 전부에 짝이 되는 가짜를 세워 놓습니다.

1. 돌밭 청중의 기쁨은 뿌리 없는 기쁨
2. 예후, 회심 전 바울의 열심도 가짜
3. 발람도 하나님 백성의 복을 갈망했다
4. 바리새인도 영생을 강하게 소망했다
5. 거의 모든 감정 목록에 가짜 짝이 있다

> **마태복음 13:20**
>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 없는 돌밭. 가짜 기쁨
>
>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 **요한복음 5:35**
> 요한의 빛 안에서 “잠시” 즐거워한 무리. 일시적 기쁨
>
>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 **열왕기하 10:16**
> 예후의 “여호와를 위한 열심”. 자기 야망이 섞인 열심
>
>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 **갈라디아서 1:14**
> 회심 전 바울의 유대교 열심. 열심이 곧 은혜는 아님
>
>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

> **빌립보서 3:6**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행전 22:3

바울이 하나님께 열심 있던 유대인이었다는 고백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라

로마서 10:2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님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민수기 23:9~10

발람의 진지한 종교적 갈망. 은혜 없는 사모함

9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10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사분의 일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 4. 가짜 감정은 한꺼번에 일어난다: 호산나 군중

회심 전의 사람이 신앙감정과 닮은 감정을 하나씩 체험할 수 있다면, 여러 개를 동시에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이것이 실제로 자주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대체로 거짓 감정 하나가 크게 고조되면 다른 거짓 감정들도 함께 따라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사로가 살아난 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은 군중입니다. 그들에게는 찬탄, 경외, 사랑(길에 옷을 깔았습니다), 감사,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과 소망, 넘치는 기쁨, 주저 없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즈는 이것을 은혜의 증거가 아니라 거짓 감정이 무리 지어 일어난 사례로 봅니다.

1. 하나가 가능하면 여럿도 동시에 가능
2. 거짓 감정이 고조되면 다른 감정도 따라옴
3. 호산나 군중에겐 거의 모든 감정이 있었다
4. 경외, 사랑, 감사, 소망, 기쁨, 열정까지
5. 그래도 그것은 은혜의 증거가 아니었다

📜 5. 왜 함께 일어나는가: 사랑의 모조품이 원천이다

에드워즈는 강한 감정 하나가 다른 감정들을 깨우는 것을 자연의 원리와 감정의 본성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조된 감정이 '사랑의 모조품'일 때 특히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사랑은 모든 감정의 으뜸이자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면 그것을 기뻐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을 내고,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랑이 참되면 참된 감정들이 흘러나옵니다. 사랑이 가짜면 가짜 감정들이 같은 길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니 감정이 여럿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은 원천이 무엇인지 알려 주지 못합니다.

1. 강한 감정 하나가 다른 감정을 깨운다
2. 이건 자연 원리로도 설명된다
3. 사랑은 모든 감정의 으뜸이자 원천
4. 가짜 사랑에서 가짜 감정들이 흘러나옴
5. 가짓수가 아니라 원천을 봐야 한다

📜 6. 가상 사례: 환상과 음성으로 시작된 거짓 확신

에드워즈는 거짓 감정 묶음이 생기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그립니다. 한 사람이 지옥에

계기는 다양합니다. 팔을 벌리고 피 흘리며 웃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환상이나 강렬한 상상으로 떠오르고, 그는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여깁니다. 또는 “내 아들아, 기뻐하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같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그가 복음의 구원 길과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보여 주는 성령의 조명을 받은 적이 없고,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린 적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끔찍한 공포에서 갑자기 풀려났으니 상상 속 구원자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놀라운 기쁨이 솟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법칙으로 설명됩니다. 경탄과 감사가 넘치고, 그는 자기 체험을 쏟아 놓기 시작합니다.

1. 극심한 공포 뒤 갑작스러운 '용서 확신'
2. 환상 속 모습이나 들린 음성이 계기
3. 성령의 조명도, 그리스도 영접도 없었다
4. 공포에서 풀린 반동으로 사랑·기쁨 폭발
5. 이것은 자연 법칙으로 설명되는 감정

📜 7. 그 사람의 그다음 모습: 겸손 흉내, 편 가르기, 뜨거운 열심

에드워즈는 이 사람이 이어서 보이는 모습을 길게 묘사합니다. 성도와 정말 닮아 있어서 섬뜩할 정도입니다. 그는 한동안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사람들에게 함께 기뻐하자고 권하며, 환한 얼굴로 체험을 간증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불평했지만 이제는 쉽게 순복합니다. 자기의 무가치함과 타락을 통곡하며 길든 양처럼 엎드려 “왜 저입니까?”라고 외칩니다. 왕으로 지목받은 사울이나 언약을 받은 다윗의 말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모습에서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는 자기 체험을 칭찬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체험을 가볍게 보는 사람에게는 격한 반감을 품습니다. 그들과 노골적으로 갈라서며 마치 전쟁을 선포하듯 행동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을 경멸하고 비난하면서, 자기가 받는 고난은 영광으로 여깁니다. 감정이 뜨거운 동안에는 자기 편을 위해 힘껏 수고하고 자기 유익도 포기합니다. 바리새인이 교인 하나를 얻으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듯 자기 편을 늘리려 애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 본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일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고 믿습니다.

2. 겉으로는 겸손과 감사가 가득하다
3. 자기 체험을 인정하는 사람만 사랑함
4. 의심하는 사람은 경멸하고 갈라선다
5. 자연스러운 일을 초자연이라 착각한다

> **사무엘하 7:18**
> 다윗의 “나는 누구오며”. 참된 겸손의 말도 흉내 낼 수 있음
>
>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사울의 말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는 에드워즈가 장절 없이 인용합니다. 사무엘상 9:21. 버림받은 사울도 같은 겸손의 말을 했다는 점이 요지입니다. 바리새인이 교인 하나를 얻으려 두루 다닌다는 표현은 마태복음 23:15의 암시입니다)

📜 8. 샘과 나무, 그리고 두 꿈: 모양은 닮아도 근원이 다르다

에드워즈는 비유로 정리합니다. 참된 하나님 사랑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감정이 흘러나오듯, 사랑의 모조품에서는 거짓 감정이 흘러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사랑은 샘이고 다른 감정은 물줄기입니다. 샘물이 달면 모든 통로에 단물이 흐르고, 샘에 독이 있으면 모든 통로에 독이 흐릅니다. 통로의 모양은 같아도 물의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의 진액이 좋으면 열매가 싱싱하고, 썩었으면 열매도 결국 죽습니다. 두 나무는 모양이 닮았지만 열매를 먹어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성도와 위선자(속으로는 은혜가 없으면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체험도 겉모양과 표현으로는 매우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차이와 같습니다. 두 꿈은 아주 닮아 보였고, 떡 굽는 관원장은 동료의 좋은 해석을 듣고 큰 기대를 품고 자기 꿈을 말했다가 크게 실망했습니다. 재료는 여기서 끊깁니다.

1. 사랑은 샘, 다른 감정은 물줄기

3. 나무 모양은 같아도 열매 맛이 다르다
4. 성도와 위선자의 체험은 겉이 닮았다
5. 닮은 두 꿈, 정반대의 결말

> **창세기 40:16**
> 떡 굽는 관원장이 좋은 해석을 기대하며 꿈을 말함. 닮은 체험이라도 결말은 다를 수 있음 (에드워즈는 장절 없이 이야기로 언급, 창세기 40장)
>
>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사랑은 감정의 원천이며 다른 감정들은 그 원천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다."

"그 열매를 먹어 보면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신앙감정(affection)
하나님과 신앙의 일을 향해 마음이 강하게 기울고 움직이는 것.

소극적 표지
참 은혜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겉모습.

모조품(counterfeit)
겉은 은혜로운 감정과 같지만 근원이 다른 가짜 감정.

에드워즈에게 사랑은 기쁨, 갈망, 열심, 두려움 같은 다른 감정을 낳는 뿌리 감정입니다.

성령의 조명
복음의 구원 길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마음이 실제로 보게 하시는 성령의 일.

위선자
속에 은혜가 없으면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대개 자신도 속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자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참 성도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연의 원리
성령의 특별한 일 없이도 사람 마음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감정의 움직임.

회심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근원이 새로워져 그리스도께 돌아서는 일.

⚖️ 거짓과 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여러 신앙감정이 한꺼번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은혜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 슬픔, 경외, 감사, 기쁨, 열심, 갈망, 소망 모두 성경에 그 모조품이 있습니다.
- 사랑이 감정의 원천이기 때문에, 가짜 사랑 하나에서 가짜 감정 묶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 참과 거짓은 겉모양이 닮을 수 있으니, 샘의 근원과 열매의 맛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8편 ·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그리고 순서대로 · 표지 7·8 (준비 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